

## ὄσος 번역을 위한 제안 — πᾶς와의 결합형과 단독형을 중심으로 —

심우진\*

###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ὄσος의 번역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ὄσος가 여러 번역본 성경에서 제대로 번역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점검 후 보다 나은 번역이 있을 경우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경 번역에서는 형식 일치 번역(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과 내용 동등성 번역(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의 두 가지 원칙이 있고, 번역을 할 때 이 원칙들 사이에서 고민하며 보다 나은 번역을 모색한다.<sup>1)</sup> 그런데 이 논문은 이보다 더욱 기초적인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스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번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ὄσος는 모두 110회 등장한다. 이것은 비교적 높은 빈도수에 속한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ὄσος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에서 ὄσος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그리스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predigt@naver.com](mailto:predigt@naver.com).

- 1) 형식 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민영진, “표준 새번역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37:2 (1993), 46; 나채운, “표준 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1)”, 「기독교사상」 37:10 (1993), 110-114; 박덕창, “표준 새번역의 ‘내용의 동등성’”, 「기독교사상」 38:11 (1994), 176-188;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 ‘표준새번역’과 ‘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72-92.
- 2)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약 5,500개인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3회 이하 등장한다. 10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는 170여 개로서, 신약의 총 단어 수인 약 137,000개 중에서 100,000개의 단어를 구성한다. Bruce M. Metzger, *Lexical aid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Princeton: distributed by the Theological Book Agency, 1969) 참조.

어 사전에서 기본적인 의미와 몇 개의 예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양적인 면에서 설명은 너무 적은 분량이다. 그리스어 문법책에서도 ὅσος에 대한 설명은 극히 적은 분량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아예 설명 없이 어떤 도표 안에 다른 단어들과 함께 표기되는 수준으로만 등장하고, 극히 일부의 문법책에서만 다른 문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곁들이는 형식으로 ὅσος의 용법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ὅσος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약성경 그리스어에 관한 가장 방대하고 권위 있는 사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이하 *TWNT*)<sup>3)</sup>가 ὅσος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WNT*는 그리스어 단어를 공시적, 통시적인 차원에서 풍부한 예문들과 함께 그 의미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만일 *TWNT*가 ὅσος를 다루었다면 이 단어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아쉽게도 *TWNT*가 ὅσος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ὅσος에 대한 연구는 그리스어 사전들의 기본적인 의미 설명과 일부 그리스어 문법책에 있는 ὅσος에 대한 설명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들 설명을 모두 모아 봐도 몇 문장 되지 않기 때문에 ὅσος의 의미 규명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할 때 ὅσος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ὅσος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ὅσος 번역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2. ὅσος의 의미

독일어권에서 고전 그리스어 사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사전<sup>4)</sup>은 ὅσος의 기본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ὅσος는 wie groß(‘얼마나 큰’), wie weit(‘얼마나 멀리’), wie lang(‘얼마나 긴’), wie viel(‘얼마나 많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사전은 ὅσος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예문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

3) Gerhard Kittel,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66).

4) Wilhelm Gemoll,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München: Oldenbourg, 1997). 보통 *Gemoll* 사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1908년 이 사전의 초판이 나온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sup>5)</sup> 그런데 이러한 예문들은 그리스 문학 작품들에서 온 것들로서 신약성경의 예문은 극히 적은 분량만 소개되어 있다.

한편, 신약성경 그리스어 문법에 있어서 고전적인 교과서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이하 *GNG*)<sup>6)</sup>는 ὄσος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ὄσος는 대명사(Pronomina) 중의 하나로서, 상관관계대명사(Korrelativa)로 분류된다.<sup>7)</sup> 둘째, ὄσος의 용법에 대해서 *GNG*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정관계대명사(das bestimmte Relativum) ὅς와 부정관계대명사(das unbestimmte Relativum) ὅστις는 신약성경 그리스어에서 사실상 같은 용법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든다. 마태복음 18:23, ὡμοιώθη ἡ βασιλεία ⋯ βασιλεῖ, ὅς ⋯, 그리고 마태복음 22:2, ὡμοιώθη ἡ βασιλεία ⋯ βασιλεῖ, ὅστις ⋯. 두 구절에서 ὅς와 ὅστις는 각각 등장하지만 사실상 같은 용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GNG*는 이러한 설명에 ὄσος도 이와 비슷하다는 문장을 첨가했다. 결국 *GNG*에 따르면 ὄσος는 ὅς와 비슷하게 한정관계대명사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셋째, *GNG*는 ὄσοι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πάντες οἱ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9)</sup>

이와 같은 *GNG*의 ὄσος에 대한 설명은 이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ὄσος를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한 사례들을 보면 위의 세 가지 설명이 마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처럼 적용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sup>10)</sup>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세 번째 설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결론을 먼저 언급한다면 세 번째 설명을 성경 번역에 있어서

5) 우리말로 된 그리스어 사전인 『최신 성서헬라어사전』에서도 ὄσος의 의미를 “얼마만큼 큰”, “얼마나 많은”, “-만큼 큰”, “-만큼 먼”, “-만큼 많은”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종현, 『최신 성서헬라어사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309. 그리고 프레드릭 윌리엄 댄커,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김한원 역(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407 참조.

6) Friedrich Blass, Albert Debrunner, and Friedrich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896년 프리드리히 블라스(Friedrich Blass)와 알베르트 데브루너(Albert Debrunner)에 의해서 초판이 나온 이후로 이 책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최종 개정판은 프리드리히 레코프(Friedrich Rehkopf)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7) Ibid., 50.

8) Ibid., 241.

9) Ibid., 252.

10) 본 논문에서 참조한 외국어 성경은 다음과 같다.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 1989),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2007),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2011), Revidierte Lutherbibel (LUT, 1984). 본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성경원문연구」 원고 투고 규정에 따른 약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적용해왔다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다. 이를 위해서 ὅσος의 기본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GNG가 신약성경 그리스어에 관한 기념비적인 작품임에는 분명하지만, 500쪽이 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ὅσος에 대한 설명은 불과 몇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그리스어 문법책인 *Hellas: Griechische Grammatik* (이하 HGG)<sup>11)</sup>는 ὅσος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2)</sup>

οἷος, οἷα, οἷον	wie beschaffen, was für ein (lat. qualis)
ὅσος, ὅση, ὅσον	wie groß (lat. quantus)
ὅσοι, ὅσαι, ὅσα	wie viele (lat. quot)

HGG의 설명은 ὅσος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οἷος와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는데, οἷος는 ‘질적인 것’(qualis)을 나타내는 한편, ὅσος는 ‘양적인 것’(quantus 또는 quot)을 나타낸다. 즉 HGG의 설명에 따르면, ὅσος의 기본적인 의미는 ‘질적인 개념’에 대비되는 ‘양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ὅσος가 양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적절한 예가 있다. 히브리서 10:37의 μικρὸν ὅσον ὅσον이 그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잠시 잠깐 후면”(『개역개정』), “아주 조금만 있으면”(『새번역』)으로 번역했는데, ὅσος의 양적인 개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번역했다. 칠십인역(LXX) 이사야 26:20에서 동일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sup>13)</sup> 이것은 μικρὸν ὅσον ὅσον이 신약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 표현은 상당히 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NTG 28판에 따르면 누가복음 5:3의 이문이 유사한 표현을 담고 있다.<sup>14)</sup> D 사본(Codex Bezae Cantabrigiensis)이 ὅσον ὅσον이란 표현을 갖고 있는데, 본문으로 채택된 ὀλίγον을 대신해서이다. 물론 D 사본의 제작 연대가 5세기로 추정된다고 해서 이 표현이 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본의 제작 연대와 사본이 담고 있는 본문의 생성 연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본들이 ὀλίγον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D 사본이

11) Friedrich Maier, *Hellas: Griechische Grammatik* (Bamberg: Buchner, 1997).

12) Ibid., 45.

13)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사전은 히 10:37의 ἔτι μικρὸν ὅσον ὅσον이 칠십인역 사 26:20의 μικρὸν ὅσον ὅσον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Horst Balz and Gerhard Schneider, “ὅσος”,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vol. 2, 2nd ed., (Stuttgart: Kohlhammer, 1992), Bd. II, 1313 참조.

14) *Novum Testamentum Graece*, 28 rev.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196.

ὅσον ὅσον이란 표현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 표현이 신약 시대로부터 상당히 후대까지도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ὅσος가 양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용례들이 시간적인 범위와 지역적인 범위 면에서 매우 광범위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위한 하나의 예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ὅσος의 의미와 용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용례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는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ὅσος의 용례들을 기본적인 의미, 특히 양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고 점검해 보도록 한다.

### 3. 신약성경의 ὅσος 용례들

신약성경에서 ὅσος는 모두 110회 등장한다. 그중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66회 등장하는데, 우선 이 용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용례들을 구절과 함께 아래의 도표에 표기하였다. 이 도표에는 πᾶς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는데, ὅσος와 πᾶς의 결합형은 본 논문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구절에서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는 (1), (2)와 같이 표기하여 따로 분류하였고, 전치사와의 결합형은 전치사를 함께 표기하였다.

<표 1>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의 ὅσος 용례 (πᾶς와의 결합 포함)

1	마 7:12	πάντα ὅσα	2	9:15	ἐφ' ὅσον
3	13:44	πάντα ὅσα	4	13:46	πάντα ὅσα
5	14:36	ἄσσοι	6	17:12	ἄσσο
7	18:18 (1)	ἄσσο	8	18:18 (2)	ἄσσο
9	18:25	πάντα ὅσα	10	21:22	πάντα ὅσα
11	22:9	ἄσσοϋς	12	23:3	πάντα ὅσα
13	25:40	ἐφ' ὅσον	14	25:45	ἐφ' ὅσον
15	28:20	πάντα ὅσα	16	막 2:19	ἄσσον
17	3:8	ἄσσο	18	3:10	ἄσσοι
19	3:28	ἄσσο	20	5:19	ἄσσο
21	5:20	ἄσσο	22	6:30 (1)	ἄσσο
23	6:30 (2)	ἄσσο	24	6:56	ἄσσοι

25	7:36	ὅσον	26	9:13	ὅσα
27	10:21	ὅσα	28	11:24	πάντα ὅσα
29	12:44	πάντα ὅσα	30	눅 4:23	ὅσα
31	4:40	ἅπαντες ὅσοι	32	8:39 (1)	ὅσα
33	8:39 (2)	ὅσα	34	9:5	ὅσοι
35	9:10	ὅσα	36	11:8	ὅσων
37	12:3	ὅσα	38	18:12	πάντα ὅσα
39	18:22	πάντα ὅσα	40	요 1:12	ὅσοι
41	4:29	πάντα ὅσα	42	4:45	πάντα ὅσα
43	6:11	ὅσον	44	10:8	πάντες ὅσοι
45	10:41	πάντα ὅσα	46	11:22	ὅσα
47	16:13	ὅσα	48	16:15	πάντα ὅσα
49	17:7	πάντα ὅσα	50	행 2:39	ὅσους
51	3:22	πάντα ὅσα	52	3:24	πάντες ὅσοι
53	4:6	ὅσοι	54	4:23	ὅσα
55	4:28	ὅσα	56	4:34	ὅσοι
57	5:36	πάντες ὅσοι	58	5:37	πάντες ὅσοι
59	9:13	ὅσα	60	9:16	ὅσα
61	9:39	ὅσα	62	10:45	ὅσοι
63	13:48	ὅσοι	64	14:27	ὅσα
65	15:4	ὅσα	66	15:12	ὅσα

위의 도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형용사  $\pi\acute{\alpha}\varsigma$ 와의 결합형이다. 주로 복수형인  $\pi\acute{\alpha}\nu\tau\alpha$  ὅσα와  $\pi\acute{\alpha}\nu\tau\epsilon\varsigma$  ὅσοι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pi\acute{\alpha}\varsigma$ 와 ὅσος의 결합형은 모두 22회에 달한다. 전체 빈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1에 해당한다.<sup>15)</sup>

한편, 바울서신에서 ὅσος는 모두 25회 등장한다. 이것을 아래의 도표에 표기하였다. 이 도표에는  $\pi\acute{\alpha}\varsigma$ 와의 결합형인 경우를 포함하여 앞의 도표와

15) 이러한 용례들을 병행구절에 따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ὅσος의 용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막 10:21의 ὅσα가 병행구절인 눅 18:22에서는  $\pi\acute{\alpha}\nu\tau\alpha$  ὅσα로 등장한다. 누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의 문장에  $\pi\acute{\alpha}\nu\tau\alpha$ 를 추가한 것이다. 한편,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막 12:44의  $\pi\acute{\alpha}\nu\tau\alpha$  ὅσα는 병행구절인 눅 21:4에서  $\pi\acute{\alpha}\nu\tau\alpha$ 만 등장한다. 누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의 문장에서 ὅσα를 생략한 것이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표 2> 바울서신에서의 ὅσος 용례 (πᾶς와의 결합 포함)

1	롬 2:12 (1)	ὅσοι	2	롬 2:12 (2)	ὅσοι
3	3:19	ὅσα	4	6:3	ὅσοι
5	7:1	ἐφ' ὅσον	6	8:14	ὅσοι
7	11:13	ἐφ' ὅσον	8	15:4	ὅσα
9	고전 7:39	ἐφ' ὅσον	10	고후 1:20	ὅσαι
11	갈 3:10	ὅσοι	12	3:27	ὅσοι
13	4:1	ἐφ' ὅσον	14	6:12	ὅσοι
15	6:16	ὅσοι	16	빌 3:15	ὅσοι
17	4:8 (1)	ὅσα	18	4:8 (2)	ὅσα
19	4:8 (3)	ὅσα	20	4:8 (4)	ὅσα
21	4:8 (5)	ὅσα	22	4:8 (6)	ὅσα
23	골 2:1	ὅσοι	24	딤펴전 6:1	ὅσοι
25	딤펴후 1:18	ὅσα			

마지막으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ὅσος가 등장하는 경우는 모두 19회로서 아래의 도표와 같다. 이 도표에도 앞의 도표들과 같은 조건을 적용시켰다.

<표 3> 나머지 신약성경에서의 ὅσος 용례 (πᾶς와의 결합 포함)

1	히 1:4	ὅσω	2	2:15	ὅσοι
3	3:3	καθ' ὅσον	4	7:20	καθ' ὅσον
5	8:6	ὅσω	6	9:27	καθ' ὅσον
7	10:25	ὅσω	8	10:37 (1)	ὅσον
9	10:37 (2)	ὅσον	10	벧후 1:13	ἐφ' ὅσον
11	유 1:10 (1)	ὅσα	12	유 1:10 (2)	ὅσα
13	계 1:2	ὅσα	14	2:24	ὅσοι
15	3:19	ὅσους	16	13:15	ὅσοι
17	18:7	ὅσα	18	18:17	ὅσοι
19	21:16	ὅσον			

위의 세 가지 도표들에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은 πᾶς와의 결합형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성경의 모든 ὅσος 용례에서 πᾶς와 결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그야말로 πᾶς와 ὅσος의 결합형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GNG는 ὅσοι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πάντες οἱ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πᾶς와 ὅσος의 빈번한 결합이 보여 주듯이 두 단어가 서로 결합하고자 하는 속성이 빛은 결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성경의 용례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이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셋 중에 하나가 πᾶς와 결합했지만, 나머지 신약성경에서는 πᾶς와의 결합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GNG의 설명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넘어서 신약성경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는 신약성경의 ὅσος 용례를 성경 본문에서 사용된 사례를 따라서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는 πᾶς와 ὅσος의 결합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ὅσος가 πᾶς와 자주 결합했다는 점은 비록 복음서만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ὅσος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잘 드러낼 수도 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히 여기서는 방법론적으로 ὅσος의 기본적인 의미인 양적인 개념, 곧 quantus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도록 한다.

### 3.1. πᾶς와 ὅσος의 결합형에 대한 번역들

누가복음 18:22에 따르면, 어떤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πάντα ὅσα ἔχεις πώλησον καὶ διάδος πτωχοῖς,

이 문장을 『개역개정』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고 『새번역』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로 번역하였다. πάντα ὅσα를 『개역개정』은 ‘(네게 있는) 것을 다’, 그리고 『새번역』은 ‘(네가 가진) 것을 다’로 번역한 것이다. 한편 NRS와 ESV는 ‘all that’, NIV는 ‘everything (that)’, 그리고 LUT는 ‘alles, was’로 번역하였다. 예수는 관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문장에서 πᾶς와 ὅσος의 결합형인 πάντα ὅσα는 이 관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어 표현 πάντα ὅσα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πάντα는 말 그대로 ‘모두’, ‘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ὅσα는 어떤 뜻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어 있는가? 영어의 경우 관계대명사 ‘that’으로 대체되어 있고, 독일어의 경우도 관계대명사 ‘was’로 대체되어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것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ὅσα의 기본적인 의미인 quantus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당연히 재산의 전체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재산의 한정적인 분량 그 자체를 ὅσα가 가리키고 있다. 그 분량 내에서 πάντα 곧 모두를 바치라고 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장면(막 12:44)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αὕτη δὲ ἐκ τῆς ὑστερήσεως αὐτῆς πάντα ὅσα εἶχεν ἔβαλεν ὅλον τὸν βίον αὐτῆς.

이 문장을 『개역개정』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리고 『새번역』은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로 번역하였다. πάντα ὅσα를 εἶχεν과 함께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 또는 ‘가진 것 모두, 전부’로 번역한 것이다. 한편 NRS, ESV, NIV는 ‘everything, all’, 그리고 LUT는 ‘alles, was’로 번역하였다. 여기서도 누가복음 18:22에서 살펴본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과부는 비록 적기는 하지만 그녀가 가진 재산이 있었다. 불과 몇 푼에 불과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소유에서 헌금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녀의 재산이 존재한다.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재산은 한정적인 분량일 수밖에 없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정적인 분량의 재산 그 자체를 ὅσα가 가리키고 있다. 그녀는 그 분량 내에서 πάντα 곧 모두를 바친 것이다.

이것은 πᾶς와 ὅσος의 결합형이 등장하는 22번의 모든 구절에 적용될 수 있다.<sup>16)</sup> 각각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ὅσος는 한정적인 분량을 지칭하고, πᾶς는 그 한정적인 분량의 범위 내에서 ‘모두’를 의미한다.

### 3.2. ὅσος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용례들과 이에 대한 번역들

이번에는 πᾶς와 ὅσος의 결합형이 아닌, ὅσος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용례

16) 마 7:12; 13:44, 46; 18:25; 21:22; 23:3; 28:20; 막 11:24; 12:44; 눅 4:40; 18:12, 22; 요 4:29, 45; 10:8, 41; 16:15; 17:7; 행 3:22, 24; 5:36, 37.

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ὅσος가 단독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복수형인 ὅσοι 또는 ὅσους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모두 16회 등장하는데, 의미상 사람을 가리킨다.<sup>17)</sup> 이에 따라 우리말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은 ὅσοι 또는 ὅσους를 사람으로 번역하였다.<sup>18)</sup> 한편 ὅσοι 또는 ὅσους가 아닌 다른 형태, 곧 ὅσον이나 ὅσα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ὅσος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그 형태가 ὅσοι 또는 ὅσους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인가로 구분되어서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용법과 그렇지 않은 용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우선 요한복음 1:12을 예로 들어보자.

ὅσοι δὲ ἔλαβον αὐτόν,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ἐξουσίαν τέκνα θεοῦ γενέσθαι,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이 구절을 『개역개정』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새번역』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ὅσοι를 “영접하는 자”라고 번역함으로써 사람을 의미하도록 하였고, 『새번역』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번역함으로써 ὅσοι가 사람을 의미하면서도 복수로 표현하여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하였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 무난한 번역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문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한다. NRS, ESV, NIV가 모두 ὅσοι를 ‘all who’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에는 πᾶς가 없는데 번역문에 ‘all’이란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영어 성경은 왜 이런 번역을 했을까? 영어 성경이 ‘all’이란 단어를 추가하여 번역한 것은 독일어 성경과 비교해보아도 차이가 난다. LUT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Wie viele ihn aber aufnahmen, denen gab er Macht, Gottes Kinder zu werden, denen, die an seinen Namen glauben” LUT는 이 구절의 ὅσοι를 ‘alle’라는 단어 없이 ‘wie viele’로만 번역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과 독일어 성경 LUT는 ‘모두’라는 의미의 추가 없이 번역한 반면, 영어 성경은 마치 πᾶ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다.

ὅσοι의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자. 마가복음 6:56에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17) 마 14:36; 22:9; 막 3:10; 6:56; 눅 4:40; 9:5; 요 1:12; 10:8; 행 2:39; 3:24; 4:6, 34; 5:36, 37; 10:45; 13:48. 이 중에서 마 22:9와 행 2:39 두 구절에서만 4격 형태인 ὅσους가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1격 형태인 ὅσοι가 쓰였다.

18) 이것은 πᾶς와의 결합형에서도 마찬가지다. πᾶς가 ὅσοι와 결합했을 때는 사람을 가리킨다.

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온다. 병자들은 예수의 옷을 만지려고 노력했고 만지는 자들은 병이 나았다. 이때 ὅσοι가 등장한다.

καὶ ὅσοι ἂν ἤψαντο αὐτοῦ ἐσώζοντο.

이 문장을 『개역개정』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리고 『새번역』은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다’, 『새번역』은 ‘모두’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 성경도 마찬가지다. NRS와 NIV는 공통적으로 ὅσοι를 ‘all who’로 번역하였고, LUT도 ‘alle, die’로 번역하였다. 그리스어 원문에는 πᾶς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다. 요한복음 1:12의 경우는 πᾶ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한 성경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었다. 그런데 마가복음 6:56의 경우는 모든 성경이 πᾶ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가복음 3:10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ὥστε ἐπιπίπτειν αὐτῷ ἵνα αὐτοῦ ἄψωνται ὅσοι εἶχον μάστιγας.

이 문장을 『개역개정』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러왔음이더라”, 그리고 『새번역』은 “온갖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였다. 『새번역』은 ‘누구나’를 삽입함으로써 ‘모두’를 강조한 한편, 『개역개정』은 ‘모두’라는 의미를 전혀 삽입하지 않았다. 한편 NRS는 ὅσοι를 ‘all who’로, LUT는 ‘alle, die’로 번역하였는데, NIV는 ‘all’의 삽입 없이 ‘those’로만 번역하였다. 결국 마가복음 6:56과 3:10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성경 번역이 제각각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마가복음 6:56과 3:10은 예수의 이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들이다. 두 구절 모두 매우 유사한 조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번역본마다 πᾶ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은 ὅσοι의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sup>19)</sup>

그렇다면 πᾶ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

19) 이것은 ESV도 마찬가지다. ESV는 막 6:56의 ὅσοι를 ‘as many as’로 번역했다. 이것은 ὅσος의 양적인 개념을 잘 반영한 번역으로 보인다. 그런데 막 3:10의 ὅσοι는 ‘all who’로 번역했다. πᾶς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다. 즉 ESV 역시 ὅσος의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적으로 같은 의미로 파악되는 것은 아닐까? 이를 위해서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문장 1 :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

문장 2 :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문장 1에서는 ‘손을 대는 행위’가 눈에 띈다. 한편 문장 2에서는 ‘손을 대는 행위’와 더불어서 그들이 ‘모두 치유되는 것’이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모두’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즉 ‘모두’가 있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완벽하게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ὅσοις가 πάντες 없이 단독으로 등장했는데, 번역문에서 πάντε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ὅσοις가 복음서에서 단독으로 등장하는 44회 중에서 성경의 번역본이 ‘ πάντες가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16회)	마 14:36; 18:18; 막 3:28; 6:30, 56; 10:21; 눅 9:5, 10; 12:3; 요 11:22; 행 4:6, 23; 9:39; 13:48; 14:27; 15:4
새번역 (19회)	마 14:36; 18:18; 22:9; 막 3:8, 28; 6:30, 56; 10:21; 눅 8:39; 9:10; 요 11:22; 행 2:39; 4:6, 23, 28; 9:39; 13:48; 14:27; 15:4
NRS (23회)	마 14:36; 17:12; 18:18; 22:9; 막 3:8, 10, 28; 6:30, 56; 9:13; 눅 9:5, 10; 11:8; 12:3; 요 1:12; 11:22; 16:13; 행 2:39; 4:6, 28; 14:27; 15:4, 12
ESV (12회)	마 17:12; 18:18; 막 3:8, 28; 6:30; 9:13; 10:21; 요 1:12; 11:22; 행 2:39; 14:27; 15:4
NIV (20회)	마 14:36; 17:12; 18:18; 22:9; 25:40, 45; 막 3:8, 28; 6:30, 56; 9:13; 10:21; 요 1:12; 11:22; 행 2:39; 4:23; 9:13; 13:48; 14:27; 15:4
LUT (7회)	마 14:36; 막 3:10; 6:30, 56; 10:21; 행 4:6; 13:48

위의 도표에는 ‘모두’의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집계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52%(NRS), 그리고 적게는 16%(LUT) 정도의 구절에서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번역하였다. 번역본들끼리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스어 원문의 번역에 있어서 문제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은 약 48%에서 84%에 이르는  $\pi\acute{\alpha}\varsigma$ 의 삽입이 없는 번역문들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pi\acute{\alpha}\varsigma$ 가 있는 것처럼 번역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 구절들은 얼마든지 ‘모두’의 삽입 없이 번역할 수 있다. 절반이 넘는,  $\pi\acute{\alpha}\varsigma$ 의 삽입 없는 번역문들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구절에서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에서  $\pi\acute{\alpha}\nu\tau\alpha$  ὅσα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ὅσος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한정적인 범위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 범위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각을 달리 하면 ‘모두’의 의미로 표현해도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pi\acute{\alpha}\varsigma$ 와 ὅσος의 결합형과 ὅσος의 단독 사용을 아예 같은 의미로 간주하는 경우다. GNG는 ὅσοι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pi\acute{\alpha}\nu\tau\epsilon\varsigma$  οἱ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pi\acute{\alpha}\varsigma$ 와 ὅσος의 결합형과 ὅσος의 단독사용을 완전히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는 없다. ὅσοι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pi\acute{\alpha}\nu\tau\epsilon\varsigma$  οἱ로 바뀔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말 그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 원문에  $\pi\acute{\alpha}\varsigma$ 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번역하면 된다.  $\pi\acute{\alpha}\varsigma$ 와의 결합형과 단독형이 같은 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성경의 번역자가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데도 굳이 있는 것처럼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번역한 구절을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 것으로 교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예로 든 구절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막 6:56, 『개역개정』)는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로,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왔다.”(막 6:56, 『새번역』)는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병이 나왔다.’로, “온갖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막 3:10, 『새번역』)는 ‘온갖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로 교정하면 된다.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 경우 없는 것으로 번역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한 것이므로 우리말 성경의 개정판이 출간될 때 이점을 고려해 주기를 제안한다.

### 3.3. 바울서신 및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ὅσος 용례들과 이에 대한 번역들

그렇다면 바울서신 및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ὅσος의 번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복음서에서처럼 πᾶς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번역한 경우가 있는가? 복음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말 성경과 외국어 성경을 모두 포함하여 대략 25% 정도에서 ‘모두’의 의미가 삽입되어 번역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πᾶς가 없으면 없는 대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 구절만 예로 들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ὅσοι γὰρ εἰς Χριστὸν ἐβαπτίσθητε, Χριστὸν ἐεδύσασθε.

갈라디아서 3:27의 이 문장을 『개역개정』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새번역』은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πᾶς가 없다. 따라서 ‘모두’의 의미를 제외하고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개역개정』),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새번역』) ‘모두’의 의미를 제외시켜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75%의 구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두’의 의미를 제외하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sup>20)</sup>

##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경 번역본들이 ὅσος를 번역할 때 많은

20) 바울서신 및 나머지 신약성경에서도 ὅσος의 기본적인 용법은 복음서와 동일하다. ὅσος가 복수형인 ὅσοι의 형태로 등장하면 사람을 의미하고, 다른 형태로 등장하면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의미한다. 우리말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이러한 용법대로 번역을 수행했다.

경우에 있어서  $\pi\acute{\alpha}\varsigma$ 가 있는 것처럼 번역하였다.  $\pi\acute{\alpha}\varsigma$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번역본들은  $\pi\acute{\alpha}\varsigma$ 가 있는지의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세심하게 고려했다면,  $\pi\acute{\alpha}\varsigma$ 가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모두’의 의미를 삽입하여 번역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ὅσος가 단독으로 등장하더라도 ὅσος의 기본적인 의미에  $\pi\acute{\alpha}\varsigma$ 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복음서에서는  $\pi\acute{\alpha}\varsigma$ 와 ὅσος가 자주 결합했지만, 복음서를 제외한 바울서신과 나머지 신약성경에서는  $\pi\acute{\alpha}\varsigma$ 와 ὅσος의 결합형을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한 번역본 내에서  $\pi\acute{\alpha}\varsigma$ 가 없을 때 ‘모두’의 의미를 추가하여 번역한 구절들과, 역시  $\pi\acute{\alpha}\varsigma$ 가 없을 때 ‘모두’의 의미를 추가하지 않고 번역한 구절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렇게 번역한 내적 규칙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

GNG의 ὅσος에 대한 세 번째 설명, 곧 많은 경우에 있어서 ὅσοι가 πάντες οἱ로 바뀔 수 있다고 한 설명을 신약성경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보류되어야 한다.  $\pi\acute{\alpha}\varsigma$ 가 있으면 있는 대로 번역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리스어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이므로 원문의 언어적인 의미와 느낌을 더욱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주제어>(Keywords)

ὅσος,  $\pi\acute{\alpha}\varsigma$ , 성경 번역, 양적인 개념, 모두.

ὅσος,  $\pi\acute{\alpha}\varsigma$ , translation of bible, quantus, all.

(투고 일자: 2018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 ‘표준 새번역’과 ‘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72-92.
- 나채운, “표준 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1)”, 「기독교사상」 37:10 (1993), 101-123.
- 민영진, “표준 새번역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37:2 (1993), 41-50.
- 박덕창, “표준 새번역의 ‘내용의 동등성’”, 「기독교사상」 38:11 (1994), 176-188.
- 성종현, 『최신 성서헬라어사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댄커, 프레드릭 윌리엄,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전』, 김한원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Balz, Horst and Schneider, Gerhard,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vol. 2, 2nd ed., Stuttgart: Kohlhammer, 1992.
- Blass, Friedrich, Debrunner, Albert, and Rehkopf, Friedrich,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Gemoll, Wilhelm, *Griechisch-deutsches Schul- und Handwörterbuch*, München: Oldenbourg, 1997.
- Kittel, Gerhard,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66.
- Maier, Friedrich, *Hellas: Griechische Grammatik*, Bamberg: Buchner, 1997.
- Metzger, Bruce Manning, *Lexical aid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Princeton: distributed by the Theological Book Agency, 1989.

<Abstract>

**A Suggestion for the Translation of ὅσοις:  
Focused on the Combination of πᾶς and the Single Type**

Woo-Jin Shim  
(Seoul Jangsin University)

ὅσοις occurs 110 times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a relatively high frequency. This paper will check whether ὅσοις has been properly translated. An analysis of the examples of ὅσοις in the New Testament shows unique phenomenon. In the four gospels and Acts, ὅσοις often combines with πᾶς. Of the total 66 times, ὅσοις appears 22 times in the combination with πᾶς. This can be regarded as a result of the characteristic that ὅσοις tends to combine with πᾶς. In terms of contents, ὅσοις refers to a limited quantus and πᾶς refers to all within that range. The combination of the two was probably a favorite form of gospel writers.

But the problem arises from the translation of ὅσοις. Except for the gospels and Acts, the combination of πᾶς and ὅσοις cannot be found elsewhere in the Pauline epistles and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Nevertheless, many translations of the Bible add the meaning of *all* even though there is no πᾶς. What is the reason? An authoritative grammar book on ancient greek explains that in many cases, ὅσοι can be changed to πάντες οἱ. This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prejudice that the meaning of πᾶς is already included in the basic meaning of ὅσοις.

However, this prejudice should be withheld when translating the Bible. The grammar book mentions that it is interchangeable *in many* cases, but not in *all* cases. In the Pauline epistles and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except for gospels and Acts, the combination form of πᾶς and ὅσοις can never be found. Nevertheless, Korean Bible translations as well as the English and the German ones often translate ὅσοις with the meaning of ‘all’, even though there is no πᾶς. This should be corrected when the Korean Bibles are revised. It should be translated with the meaning of *all* when there is πᾶς, but if otherwise, without the addition of *all*. I think this conveys the linguistic meaning and feeling of the original text more faithfully.